

왜 새(조류, 鳥類)를 사육하기 시작했을까?¹⁾

송 순 창²⁾
대한조류협회장

I. 서론

우리의 조상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 새를 기르기 시작했다. 또한 오락적 만족을 위해 사냥을 목적으로 길들여진 맹금류의 경우에는 단백질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사육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류 사육은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 선조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송골매를 사육했다. 지금도 일부 국가(몽골)에서는 아직도 사냥하는데 맹금류를 이용하고 있다.

르네상스와 신세계가 발견되고, 그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앵무류의 매력이 알려지면서 새는 귀족이나 부호들에 의해 애완동물로 인기가 높아졌다. 특히 말하는 재주를 가진 앵무류인 “회색앵무”는 런던 근처 헨리8세가 살던 궁전에서도 사육하게 되었다. 한편, 찰스 2세(1649년 청교도 혁명때 처형)의 왕비가 소유했던 회색앵무는 죽어서 17C에 박제되었는데, 조류 표본된 박제품으로는 세계 최초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19C에는 카나리아가 사육되기 시작하였고, 20C초반까지 계속 번창했으며, 이때 나타난 것이 사랑앵무(잉꼬)의 등장이다.

1950년 이후 항공산업의 범창으로 급속하게 많은 조류 종들이 전 세계로 운송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것은 이국의 새들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의 고조로 널리 사육조의 붐이 일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장식을 목적으로 사육되었지만, 지금은 필요에 의해 많은 종류의 새들이 새장과 금사에서 자유롭게 번식하고 즐거움으로써 생활의 활력과 조류에 대한 생태 및 습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받고 있다. 조류와 다른 동물들의 국제적 매매는 CITTs(멸종위기에 있는 동물군과 식물군의 국제매매에 관한 협약) 합의 조건에 의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한편 규제된 운송기준은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칙”에서 정하며, 이것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대부분의 수출국들은 할당량을 초과하고 거두어들이며, 오직 허용하는 제한된 수의 새들만 해외로 송출된다.

1) Why did Ancestors Start Breeding Birds?

2) SONG, Soon-Chang, Korea Association of the Wild Birds, E-mail : sunchang39@hanmail.net

이러한 매매는 전체의 개체국을 고갈시키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이런 유형의 야생동물 관리는 차례로 보호계획에 적립되는 기금으로서 이용되는 국가 세원의 증가로 주위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하고, 농경지에서 유해한 종들을 잡는데 귀중한 자원을 소모하는데 대신에 농부들은 그런 조류를 수출함으로써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에 침체된 상태의 아마존강부터 황홀한 뉴욕의 아파트나 세련되지 않은 정원을 가진 한국에 이르기까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커다란 기쁨을 조류 사육을 통해서 얻고 있다.

몇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야 새를 돌봄으로써 확실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실체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한 쌍의 새는 젊은이와 노인에게 큰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매혹적인 새장은 정원에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애완조 사육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새의 보살핌이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행복의 중요한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가를 다양한 연구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취미생활은 새들을 실내에서 또는 정원의 금사에서 기르든 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II. 사조(飼鳥)의 역사

인간이 새를 가금화하여 기르기 시작한 것은 3,000-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이집트나 고대 중국에서 사육한 흔적은 여러 경로에 의해 밝혀졌다. 인간과 새가 아주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은 각종 유물이 증명하고 있다. 동물과 인간과의 유대는 문명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대 사회의 많은 부족들이 치장과 권위의 상징으로 깃털을 이용했는가 하면 신분을 상징하는 데도 사용했다.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과 남아메리카에서는 인간이 이곳에 정착한 초기부터 앵무새를 애완동물로 사육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들이 인간을 매혹시킨 이유들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전통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붉은 깃털의 야생 닭을 길들인 것처럼 새도 기르고 식용으로써의 신선한 육질과 달걀도 얻어 풍부한 식자원과 영양분을 얻는데 인간에게 크게 기여했다.

붉은 야생닭은 가금화에 성공한 이래 세계 전역으로 퍼졌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품종은 차치하고라도 심미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은 수 많은 새로운 품종을 작출하는데 동력이 되었다. 그들의 매력적인 모습 이외의 인간의 정서적 자양분까지 제공하게 된 것이다. 변종(A variety)이라고 하는 가축의 품종 개량은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처음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9C말 오스트리아 수도사인 그레고리 멘델의 업적으로 제공된 유전학은 유전법칙의 틀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한 통찰은 그전까지와

는 전혀 다른 가능성으로 품종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괄목할만한 기원을 이루게 하였다.

품종 개량은 많은 종의 새들에서 선택적으로 시도되고, 육체적으로 외형이 더 큰 범위로 개량되었다.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른 두 종류로 분리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경이로운 일이다. 색상과 체형의 변이는 애호가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앵무과의 경우가 그렇다. 모란앵무와 사랑새의 색상 변이는 색이 다양해짐으로써 많은 애호가를 양산하는 데 기여함은 말할 것도 없다.

1. 일반적인 애완조의 종류와 선택

애완조류의 선택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새를 고를 때는 건강하고 기르기 쉽고 값이 저렴한 것부터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새들은 종에 따라 핀치류(finch, 금복과), 앵무과, 비둘기과, 카나리아류과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들 중 가장 무난한 것은 십자매나 문조, 소문조가 있고 앵무과에는 사랑새(잉꼬)와 모란앵무, 그리고 비둘기과에는 박설구와 공작비둘기, 자코뱅(jacobin) 등 다양하다.

말흥내내기로 관심을 끄는 중대형 앵무는 인기는 있으나, 이 새는 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초보자가 기르기에는 좀 무리이다. 앵무새들은 말을 흥내 내고 또 다양한 재주를 부려서 애조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아주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들을 선택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사실 앵무목의 새를 구입할 때에는 어린새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요즘에는 가금화되어 개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사육자로부터 직접 적합한 새를 얻기가 쉬운 편이다

인터넷상에 많은 종류의 새들에 대한 정보가 사육자들에 의해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앵무목은 몇몇 종류에 있어서 지저귀는 목록과 모방력이 다른 것들에 비해 월등하다. 특히 회색앵무는 낮을 가려 부끄러워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재능있는 새이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지저귀는 다른 앵무새보다도 조용하여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 아마존의 앵무새는 강한 소리를 갖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듣기 싫은 날카로운소리를 낸다. 잘 길들여진 새라도 그런 행동을 방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도 잘 길들일 수 있고, 함께 즐기며 살 수 있다. 또, 이 앵무새는 분명한 어조로 말을 하는데, 여러마디의 말도 구사할 수 있다.

유황앵무(Cockatoo) 또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낸다. 특히 인도네시아 뉴기니 일대의 몰루카(Moluccas)제도는 가장 나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새들의 종이 많기로 낙인 찍힌 서식지이다. 유황앵무는 변덕스러워 믿을 수 없고, 길들여지더라도 만지는 사람을 물 수도 있다. 또, 몹시 흥분할 수 있으며, 능숙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훈련에는 고도로 반응한다. 영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유황앵무가 작은 자전거를 타고 관중 앞에서 묘기를 보여준다,

남의 말을 잘 듣는 마코앵무는 목적에 맞게 적합한 새장을 만들어야 하고, 고가의 값을 치러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마코앵무는 제한된 면적에서는 큰 소리가 더욱 큰 결점으로 작용한다. 작은 마코앵무는 색상이 그리 인상적이지 않지만 큰 마코앵무의 결점을 피할 수는 있다. 비록 어린새이지만 몇 개의 단어로 주인에게 헌신적이다. 털 알려진 열대 앵무과 중에서 호주산 중형 앵무류(*Pionus parrot*)는 애완용 새로서 명성이 있다. 이 새는 아마존의 앵무새 종류보다 비교적 작고 조용하다. 색상은 화려하지만 선명하지 않고 매혹적이며 말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다. 색상이 화려한 호주산 중형앵무는 어린이를 위해 애완조류로써 더큰 만족을 줄 수 있고, 몇 마디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애완조류로서 적당하다.

왕관앵무(Cockatiel)는 특히 겉모양이 유황앵무와 매우 비슷한 루티노(Lutino)의 변화로 애완 조류로서 인정받기 쉬웠다. 왕관앵무는 매혹적인 목소리를 가진 새로 쉽게 길들일 수 있다. 그리하여 주위환경에 거슬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준다.

수입 제한으로 큰 앵무새가 많지 않은 오늘날 호주산 모란앵무는 애완조류로 폭 넓게 사육되고 있으며, 상당한 숫자가 매년 사육자에 의해 대량 생산되고 있다. 이 새는 제한된 단어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매우 유순하여 널리 알려져 있지만 높게 평가되지는 않는다. 사육된 새의 다양한 색상은 그 인기와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 왜냐하면 다른 새들과 조합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그 색상의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사육자에 의한 무분별한 사육은 원종의 순수한 혈통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아프리카 붉토의 앵무새 종류는 인기있는 세네칼앵무와 중형 앵무들을 포함한다. 성장한 새는 매우 거칠고 애완용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으나, 사육에 의해 번식된 어린새는 애완용으로 가치가 높다. 이들 새의 자연스런 지저귀는 듣기에 도 흥미롭다.

꼬리가 긴 아시아 앵무인 패러키트(Parakeet)는 애완용으로 적합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좋은 애완조류가 될 수 있다. 이 새의 소리는 크지만 자주 소리를 내지 않는다.

앵무과의 자주머리앵무(Plumheaded Parakeet)는 일반적으로 좀 신경질적이다. 이외에 재미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아시아 앵무과에는 로리(Lory)와 로리키트(Lorikeet)가 있다. 이 새들은 특히 배설물이 더러워서 매일 2-3번씩 새장 청소를 해야 한다. 또, 새장은 주위의 가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려 주어야 한다.

사랑새(잉꼬)는 예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애완조류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마리를 가정에서 기르고 있다. 그들의 생기 있는 재잘거림과 온화함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은 보편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색상에 대한 다양성에 선택의 폭이 넓어 사육자 사이에서 그들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2. 새장고르기

가정에서의 애완조류는 사육자가 제공하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선 가능한 큰 새장(cage)을 선택한다. 새장의 모양도 다양한데, 대량 사육자에게는 직사각형의 모양이 가장 좋다.

조그마한 앵무 또는 왕관앵무의 경우에는 간격을 두는 창살은 위험해 큰 새장에서 사육된다. 때문에 전통적인 정사각형 새장은 새들의 운동에 방해가 된다. 너무 넓은 간격은 새들이 머리를 내밀어 걸릴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화려한 새장은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핀치류를 위해 거래되는 둥근 비행공간을 확보하고 수평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 좋다. 가정에서 매혹적이며 기능적인 새장을 얻기가 가능한데, 넓은 면적의 형태로 유연성 있는 모형이 추천된다.

앵무류는 약간의 비행 공간이 허용되는 곳에서 사육하는 것이 좋다. 넓은 새장에서 사는 새들은 비좁은 환경에서 사는 애완조보다 깃털을 잡아 뜯는 나쁜 버릇으로 죽는 경우가 적다.

3. 알맞은 햇대의 선택

새에 맞는 햇대의 사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적당한 굵기의 햇대는 필수적인데, 이는 새가 햇대를 움켜쥐고 안전하게 힘을 받음으로서 수컷이 암컷의 등위에 올라가 안전하게 교미를 이룰 수 있다. 또, 표준적인 지름의 햇대가 아닐 경우, 발바닥에 불룩한 압점(壓點, Pressure Spot)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비교적 무거운 햇대를 사용할 경우, 피부가 까진 부분을 부리로 찌는 버릇 때문에 상처가 나서 세균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플라스틱 햇대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 햇대는 씻기는 쉬우나 단단한 질감 때문에 모든 새들에게 매우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새들은 마지 못해 햇대에 앉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새장 창살에 매달리거나 새장 바닥에서 보낸다.

자연적인 상태의 가지는 새장 기구 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나뭇가지는 새들의 다리뿐 아니라, 부리를 위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준다. 또한 생으로 된 나무는 쪼개짐이 거의 없어 보다 안전하다. 나무로 된 햇대는 부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깃털 뜯기와 같은 문제와 결부된 권태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는 물기 있는 나무 햇대가 좋다. 사랑새와 같은 새도 적당한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좋다.

햇대로 사용될 나무의 지름은 앞발톱이 다리의 뒷부분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작아서는 안 된다. 또 햇대는 발가락으로 나무를 짊 쥐지 못할 정도로 너무 굵어서도 안 된다.

4. 습관들이기

새가 새로운 집에 적응하기에는 적어도 일 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 특히 어린새는 처음 며칠 동안 스스로 먹기를 꺼려 한다. 그러므로 먹이는 반드시 잘 보이게 한다. 사랑새(잉꼬)와 카나리아는 먹이 그릇이 낮설면 익숙지 않아 대부분 먹는 것을 꺼린다. 이럴 때는 먹이 그릇 근처에 먹이를 조금 뿌려 준다. 그러면 새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곧 자발적으로 먹이를 먹게 된다.

새장 안에 열매껍질과 배설물은 식욕을 떨어뜨린다. 또, 새의 녹색 배설물은 새가 적당량을 먹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윤기 있는 깃털이 아닌 부풀린 깃털은 단정치 못하고 윤기도 없어 힘없이 보인다. 특별하게 손으로 사육된 앵무새(손노리개)의 경우, 어떤 갑작스런 먹이의 변화는 푸른색의 배설물과 부풀린 깃털과 같은 유사한 징조를 갖게 되는 소화의 부조를 촉진하는 때와 긴급한 가축병 치료가 요구될 때 이러한 현상 나타나게 된다.

5. 날개자르기

새들의 비상(飛翔)깃털을 자르는 것은 날개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연습 능력을 감소시킨다. 그런데도 새장에 앉아서 날개를 힘 있게 퍼덕거리는 것은 아직까지 날개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깃털을 자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한된 비상력을 갖고 있는 오직 하나의 날개를 제거한다. 이는 새로 하여금 날개를 움직일 수는 있게 하지만 어떠한 문제도 야기하지 않으며, 새로운 깃털이 재생될 때까지 일시적인 억제 방법이다. 그러나 날개 자르기는 새가 털갈이할 때 주의를 요한다. 이유는 날개에 피를 공급받음으로써 잘린 깃털이 재생되고, 그리하여 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새의 우간(羽幹)이 핑크빛으로 변할 때가 털갈이 징조이며, 만약 이 단계에서 날개를 자른다면 심한 출혈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입된 앵무새는 종종 비상깃털이 잘려 있어서 새장 밖으로 꺼낼 때 안전하며, 손으로 사육된 새끼들은 수입된 새보다 덜 신경질이다.

6. 새 구입하기

새로운 새를 구입하여 기르려면 그 새들의 건강, 식성, 먹이의 종류에 대한 선호도를 점검할 수 있다

록 가급적이면 2주 동안 개별 새장에서 살게 한다. 이것은 특히 최근에 수입된 군체에 적합한 조치이다.

특히 약한 부리를 가진 새들에게는 먹이의 갑작스런 변화를 가볍게 주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기에서 박테리아의 번질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이때 새는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호주 앵무새라면 이 단계에서 기생충을 제거해주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점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구입한 새를 혼합장에서 다른 새들과 합사하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주말이나 혹은 누군가 가까이 있을 때 집어넣고 다시 면밀히 살핀다. 왜냐하면 텃세로 인해 새로 유입된 새가 궁지로 몰리더라도 싸움으로 인한 어떤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먹이를 주는 적당한 위치도 매우 중요한데, 새로운 새들 근처에 여분의 먹이 그릇을 놓아두어야 한다. 강한 놈이 유일한 먹이그릇을 독점할 때는 사육장 주위에 몇 개의 먹이그릇을 놓아두어야 한다. 물그릇도 마찬가지이다.

싸움은 특히 번식기에 일어나기 쉬운데, 이때는 중간에 새로운 새를 넣는 것은 삼가야 한다. 혼자 있는 새는 암수 한쌍으로 있는 새보다 더 괴롭힘을 당하기 쉽고 그 괴롭힘은 한쌍의 새 중 하나를 잃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소동을 최소화 하려면 혼자 있는 새를 따로 분리한다.

7. 환경에 순응

어떤 새는 다른새보다 유난히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관련된 지역 환경에 다른 기후 등에 의존하는 상대적 차이에 기인한다.

이때 새의 한계를 실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약 의심이 들면 설사 잘못되더라도 먼저 주의를 기우리는 것이 좋고 겨울이 오면 따뜻란 실내로 옮겨야 한다. 특정한 조류에게는 미리 겨울에 적응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작은 새들에게는 최하 1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온도가 10℃ 이상이 되는 낮에는 밖에 두고, 밤에는 아늑한 사육장의 안전한 곳에 두도록 한다. 새들이 먹이를 먹고 체온을 잘 유지하도록 하려면 추가적인 빛이 필요하다. 대략 하루의 일조시간은 10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이용할 사육장 시설이 없다면 가급적 큰 새장에 옮겨 실내에서 겨울을 나게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입된 새는 환경 적응에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늦어도 6월까지 새의 사육장이 완성되어야 한다. 적어도 바깥에서 겨울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 새들은 최저 온도가 10℃ 이상으로 올라가야 바깥 새장에 풀어 놓을 수 있다. 안전한 상태가 유지된다면 수입한 새들에게는 외지 사육장이 좋다. 새의 깃털에 물이 배지 않도록 하려면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르므로 외부에 처음 놓아 둘 때 특히 소

나기 후에는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름은 꼬리의 기부에 있는 기름선에서 분비되며, 깃털을 치장하는 중에 온 몸으로 퍼진다. 어떤 새들은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날 수 없을 정도로 흠뻑 젖어버린다. 그래서 새들의 깃털 아래에 있는 기름의 격리효과(隔離效果)를 빼앗겨 곧 몸이 차가워진다. 만약 새들이 물에 흠뻑 적시지만 앓는다면 실내에서 생활하는 새들에게 가끔 물안개를 뿌려주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막는데 유용하다.

8. 앵무새의 겨울나기

약한 부리를 가진 조그마한 새들이 일반적으로 온기 없이 외부에서 겨울을 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큰 새들은 불안해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 적응된 사육장에서 겨울을 날 수도 있다. 이들 새의 먹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

- 고기와 밀웜(mealworm)과 같은 동물성 먹이를 준다.
- 약간의 치즈와 마카로니도 1년 중 이때에는 유용하다. 왜냐하면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많은 지방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삶은 감자와 당근을 줄 수도 있으나, 너무 좋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운날에는 동상의 위험이 있다. 동상이 심할 경우, 발가락을 잃게 되며, 새를 불구로 만들 수 있다. 예방 조치로서 동상 위험이 있는 새는 밤이 되면 사육장 보호처로 둔다. 이때 새들과 함께 이Trel를 좋아하는 큰부리새와 같은 조류를 상자에 같이 있게 넣어 준다. 동상에 걸린 새는 햇대에 앉기를 꺼려 하므로 즉시 따뜻한 곳으로 옮긴다. 처음에는 혈액 순환을 위해 새의 발을 10분마다 문질러 주는 등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런 치료에 실패하면 약 2주일 후 동상 걸린 발가락은 손실될 수 있다. 새들의 동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새장을 비닐로 가려 냉기가 사육장에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III. 새의 소화 기관

새는 단일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다. 소화는 “모래주머니”라고 하는 기관에서 담당한다. 이빨이 없는 대신 힘찬 부리가 있고 모래주머니는 모래를 저장하여 들어온 먹이를 곱틀 운동으로 잘게 부수는 단단한 근육으로 싸여 있다. 부리는 씨앗의 껍질을 까서 삼킨 먹이는 모래주머니에 보관된 모래에 의해 으깨지고, 압축된 단단한 근육의 곱틀운동에 의해 잘게 부쇄된 다음 소화가 촉진된다. 그래서 씨앗을 먹는 새에게는 깨끗한 모래가 필요한 것이다. 모래는 새의 모래주머니속 산성 상태에서 쉽게 녹

아서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해 주는데 알 낳는 암컷의 미네랄량이 고갈되는 시기에 상당히 유용하다. 미네랄인 칼슘의 원천은 오징어 뼈로, 이 모든 핀치류(금복과)와 특히 앵무과에 필요하다.

1. 곡류를 먹는 새의 소화기관

씨 먹는 새의 모이주머니는 역세고 모래같이 날카롭고 딱딱한 것을 이겨 낼 수 있는 질기고 단단한 근육으로 싸여 있다. 그리고 딱딱한 늑골이 보안까지 해 준다.

2. 육식조의 소화기관

소화는 직선적이며 먹이는 으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래주머니 벽은 비교적 연하고 얇다.

1) 모래

씨앗을 먹는 종에게는 거친 씨앗을 부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래 공급이 필요하다. 이 모래주머니는 마치 치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먹이는 잘게 부서져 소화하기 쉽도록 하고, 이 조직의 매개체인 산성의 씨앗과 낱알은 모래와 섞여 소화효소를 받아들여 씨앗에 있는 복잡한 성분은 개별적인 아미노산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물질로 분류된다. 이 먹이는 내부의 벽을 통해 흡수 될 수 있다. 씨앗을 먹는 새들이 섭취한 모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용해되지 않는 단단한 모래는 비교적 오랫동안 모래주머니에 남아 있다. 빵은 굴 껍데기와 같은, 즉 더욱 잘 녹기 쉬운 석회석 모래는 아주 빨리 부서진다. 이것은 새들에게 있어 미네랄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검은 나무 구조의 조각으로 알려진 부서진 목탄(숯)은 소화의 도우미 역할로서 약간의 보호를 해 줄 수 있으므로 모래와 함께 이용된다.

2) 오징어 뼈

인을 함유한 것과 연결하여 칼슘은 특히 새의 번식 기간 동안 중요한 미네랄이다. 칼슘은 대부분 알껍데기로 구성되며, 어린 새끼의 건강한 뼈 구성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오징어 뼈는 어느 칼슘보다 양호하다.

매끈하게 벗겨진 비교적 많은 수의 알 또는 정상적인 알로부터 부화한 병아리에게서 칼슘의 결핍은 차후 골격의 약함으로 나타난다.

씨앗을 먹고 흡수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전 세계 사육자들은 오징어 뼈를 사용하고 있다. 오징어 뼈는 어시장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오징어 뼈는 대부분 생선 기름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 제공해야 한다.

IV. 먹이의 유형과 균형 잡힌 먹이

조류사육에 있어서 먹이는 굉장히 중요하다. 새들의 먹이 습관과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각양각색이며, 적절한 먹이의 공급은 적절한 먹이 공급은 사육조의 건강과 성공을 보장 받는 중요한 요소이다. 새의 먹이는 핀치류와 앵무과 대부분의 종과 같이 곡물을 먹는 새(seedeater)들의 먹이를 하드빌(hardbill), 질기고 딱딱한 먹이와 그 외 다른 종은 식물의 종자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softbill)로 분류한다.

후자의 종류로 예를 들어보면 벌새와 태양조들이 꿀샘에서 꿀을 먹는 종이 있고, 큰부리새와 같이 과일 먹는 새도 있다. 먹이 관계로서 다양한 종류의 먹이 조섭의 필요에 따라서 새의 종류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핀치류는 특히 번식 기간에 씨앗뿐만 아니라, 벌레와 야채와 같은 것도 먹어야 한다. 어떠한 종류의 새도 한 가지 먹이로는 살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1. 먹이의 유형

1) 부드러운 먹이

구관조처럼 씨를 먹지 않는 품종의 새의 먹이로는 어느 정도 마른 곤충과 물고기 먹이와 같은 다른 성분을 포함한 벌류 먹이가 있다. 구관조의 먹이는 다른 새의 먹이보다 지방 성분이 적다. 이 종은 필히 풋과일과 같은 일반적으로 지방이 혼합되지 않은 것을 먹인다. 부드러운 먹이는 물과 섞어 반죽해서 먹이는데 경단처럼 둥글게 만들어 급여하기도 한다.

2) 살아 있는 먹이

일반적으로 야생종은 다양한 곤충과 무척추 동물을 잡아먹고 산다. 많은 종의 핀치류는 특히 그들이 번식할 때 또는 육추시 결핍되기 쉬운 아미노산을 보충 받아야 한다. 비록 필수 아미노산을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같은 영양소의 내용물이 이론적으로 육추에 지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새의

본능은 성공적인 번식을 위해서 살아있는 생식이 공급되어야 한다.

특히 부화된 어린 새끼의 생식 결핍은 정상적인 발육에 저해가 된다. 어미는 생식을 갈망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심지어는 실수로 그들 자신의 새끼를 잡아 먹을 수도 있다. 요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 있는 먹이를 구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사육자가 직접 손수 재배하는 쪽이 더 낫다.

3) 과즙

과즙은 비타민을 보충하는 먹이로 소프트빌 혼식이다. 보통 가정에서 만든 것 보다 판매용 특정 과즙을 이용하는데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설명서를 참고하면 좋다. 매일 필요한 양만큼 가정에서 만들 수 있다면 오래된 판매용 제품보다 더 좋다. 과즙은 핀치류뿐만 아니라, 특히 진홍앵무나 그 종류의 어떤 새들에게도 필수적이며 병든 새나 어린 새에게도 유익하다.

4)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과 미네랄의 조제품인 다양한 종류의 강장제가 현재 시판되고 있다.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과량 섭취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리진'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한 적당한 약을 찾아서 지시된 대로 급여한다. 대부분 가루 형태이므로 마실 물에 용해되는지 비교해 본다. 가루 형태는 과일이나 야채류에 뿌려 쉽게 복용할 수 있다.

2. 균형 잡힌 먹이

균형 잡히고 건강에 좋은 먹이 조성은 새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곡류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다. 또, 단백질 수준은 대단히 낮으므로 번식 기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단백질은 털갈이 기간뿐만 아니라, 재생과 성장하는 동안 몸의 세포를 적극적으로 합성할 때 많은 양이 요구된다. 단백질은 개별적인 아미노산(Amino-Acid, 아미노산 찌꺼기)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물이다. 약간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므로 결핍되지 않도록 먹이 조성에 공급한다.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곡물을 먹는 새가 번식기에 잡식이 되고 가끔 많은 양의 벌레를 왜 섭식하는지 그 이유가 된다.

지방은 지방 자체의 중요한 기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초과된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를 들어 지방은 외상에 대해 몸 조직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미시적 수준에서 잠재적

인 얇은 막의 파손을 막기 위해 지방의 혼합물은 개별적인 세포벽(cell wall)에 필요한 성분이다. 그렇지만 과량의 지방 섭취는 새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어떤 종류는 특히 비만에 걸리기 쉽다. 그렇지만 겨울 동안에는 먹이 조성에 있어서 비교적 지방의 수준(함유)을 증가시킨다. 이는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지방은 이러한 목적으로 매우 농축된 힘의 근원을 제공한다.

1) 곡류

수수나 기장은 식물의 씨앗의 혼합에서 쉽게 구별될 수 있다. 따뜻한 지역에서 산출되는 수수는 등글고 빨강에서 노랑까지 색상이 다양하다. 수수의 혼합물은 특정지역의 씨앗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양 결핍을 보상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카나리아 씨드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캐나다, 북아프리카, 호주와 같이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다른 곡류들은 많은 종류의 새들에게 중요한 식자원이 된다. 특히 옥수수는 빼놓을 수 없는 먹이로 노랑 형태의 곡물은 비타민 A의 원천으로서 가치가 있다. 옥수수는 물에 불려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끓여야 한다. 딱딱한 옥수수는 큰 앵무새에게는 건조한 상태로 공급할 수 있으나, 부리가 약한 새에게는 부드럽게 급여해야 한다.

2) 땅콩류

해바라기씨는 앵무새 씨앗 혼합물에서 대부분의 성분을 이룬다. 땅콩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껍질 또는 흐트러진 낱알에서 얻을 수 있다. 껍질은 벗긴 것보다는 벗기지 않은 땅콩류가 건강식품으로서 새에게 안전하다. 필요에 따라 적은 양의 해바라기씨를 추가할 수 있다. 새들은 높은 소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 있는 땅콩을 급여하는 것은 금물이다.

3) 그 외의 씨앗들

새들의 먹이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씨앗들은 재배되지만, 열매가 먹이가 되는 소나무 씨앗(Pine nuts)은 야생에서 수확한다. 그리하여 계속적인 공급은 불규칙적일 수밖에 없다. 1970년대에 전문적인 씨앗 상인에 의해 시장에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현재 공급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유럽의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새의 먹인지 모르고 있다. 큰 등급의 소나무 열매는 일부의 앵무에게 필요한 먹이가 된다. 중국에서 유래된 앵무새뿐만 아니라, 핀치류 같은 종에게도 급여하면 좋다. 소나무 씨앗은 가격이 저렴하며, 단백질 함유량이 월등하여 해바라기 씨앗에 비해 유리하다.

가끔 앵무새의 혼합된 다른 오일 씨드(Oilseed)는 잇꽃(Safflower)인데, 이것은 색깔이 갈색이기 보다는 차라리 흰색에 가깝다. 잇꽃은 미국, 호주와 중국에서 자란다. 아래의 씨앗은 일반적으로 큰 소나무 씨앗보다는 작지만, 카나리아나 핀치류의 먹이 조성에 지배적인 특징을 이룬다. 평지씨앗(Rapeseed)은 이런 새들을 위해 혼합사료의 중요한 성분이다. 빨강 종류의 평지 씨앗은 이런 방법으로 사용된다. 검은 평지 씨앗은 보통 급여하기 전에 적셔 놓아야 한다.

독일 유채(German Rubsen Rape)는 전통적으로 롤리카나리아와 같은 노래하는 카나리아에 공급된다. 카나리아의 부가적인 먹이지만 아마씨(Linseed 또는 Flaxseed)보다 많이 쓰이기도 한다. 이것은 갈색이며 타원형과 평편한 모양이다.

4) 강장제(強壯劑) 씨앗

다른 오일 씨앗은 보통 1년에 특정기간 새에게 공급되는 본질적인 강장제 먹이다. 예를 들면 번식기간 전 암컷에게 공급되는 특별한 먹이들은 산란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과 산란 중 알 막힘의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검은 씨앗은 인도의 아시아 대륙에서 재배된다. 토끼풀 씨앗이 새끼를 기르기 위한 먹이로 가끔 추천되기도 한다. 푸른색을 띤 씨앗들은 수분이 함유된 때 거두어 널리 사용된다. 왜냐하면 어린 새끼들이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5) 젖은 씨앗

젖은 씨앗은 이미 발육되면서 단백질의 양이 증가하고 더욱 소화하기 쉽게 된다. 젖은 씨앗의 준비는 우선 적은 양의 씨앗을 뜨거운 물에 담가 둔다. 담가 둔체로 24시간 후 씨앗을 고온체에 넣어서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넓게 퍼서 싹이 잘 트도록 따뜻한 곳에 놓아 둔다.

싹이 튼 콩류이든 간에 새에게 제공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철저히 행구어야 한다. 왜냐하면 젖은 씨앗은 곰팡이 또는 균류의 성장에 이상적인 매개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먹이를 아침에 급여한 후 저녁에는 용기에서 꺼내야 한다.

6) 푸른 야채(Green Food)

씨앗을 먹는 새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새에게 매일 녹색 먹이를 주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유럽에서는 별꽃식물을 녹색먹이의 으뜸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배추 잎과 무 잎과 같은 청채를 먹이로 이용한다. 특히 이들의 잎 중에서 어린 새싹은 새에게 좋은 엽록 사료이다. 햇빛이 드는

정원에 여러 종류의 인기 있는 풀씨를 뿌리는 것은 적은 양의 먹이를 수확해 낼 수 있다. 직접 재배하여 먹이로 쓰는 청채는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믿을 수 있다. 시중의 푸른 잎 채소에는 반드시 농약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추는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은 양을 급여한다. 그러나 영양면에서는 민들레 잎이나 개구리 자리류보다 뛰어나다. 민들레나 개구리자리류는 실내에서 잘 자라고 애완용 새에게는 좋은 먹이가 된다. 겨울철에는 녹색 먹이를 구하기 어렵다. 양배추 종류는 갑상선 활동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먹이로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많은 양이 공급되면 새는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겨울철에 잘 자라는 시금치는 좋은 먹이로 손색이 없다.

앵무새는 특히 시금치의 두꺼운 줄기를 갹아먹기를 좋아한다. 시금치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경작이 가능하며, 깨끗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 또, 가치 있는 채소는 당근이다. 당근은 비타민 A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씨앗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비타민 A를 섭취하기에 유익하다. 당근은 얇게 썰어 주거나 으개서 작은 새들에게 준다. 매일 급여하면 새들의 윤기 있는 색을 유지하며 건강에 도움이 된다.

모든 녹색식물은 다른 동물이나 새에게 먹이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는 대기 중에 자동차 매연이나 농약, 또는 낫이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에 서리 덮인 식물은 서리가 녹은 이후에 먹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번식기에 금화조(Zebra Finch)를 포함한 몇몇 종류의 새에게는 녹색 먹이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무 꼭대기에 있는 둥지를 만들기 위해 이미 녹색 먹이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 과일

새에게 곡물과 함께 과일을 함께 공급해야 한다. 핀치류나 다른 종에게도 일률적으로 혼합사료와 과일로는 사과가 기본적인 먹이로 공급된다. 그 이유는 사과는 사계절 내내 구입이 가능하며, 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영양분의 공급원으로서 과일은 단백질 함량이 낮으며 지방은 없는 반면에, 비타민과 다량의 수분이 있다. 때문에 새장안의 핀치류까지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과일을 급여해야 한다. 큰부리새와 같은 좀 더 큰 종의 새는 씨를 빼낸 포도나 체리를 먹일 수 있다. 대부분 씨만 발라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과일을 잘게 토막 내는 것이 좋다. 핀치류 사육자들 사이에 인기 없는 과일은 바나나이다. 바나나는 끈적한 데다 새를 살찌게 한다. 그러나 완숙되지 않은 바나나는 혼합사료에 이용해 안전하게 먹일 수도 있다. 과일은 익으면서 화학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서양 배는 부드러워지면서 독성이 생긴다.

새들의 식성과 기호는 다양하다. 큰 부리새가 좋아하는 토마토는 제한된 양을 공급하면 값진 비타민 C의 공급원이 된다. 살구는 새가 좋아하는 과일로 다른 큰 새들이 모두 먹을 수 있다. 살구는 제철이 지나면 건조한 상태로 구입할 수 있다. 건조된 과일 혼합물을 급여하기 전에 물에 담귀 불린 다음 행군다. 신선한 과일의 세 배나 칼로리가 높은 여타의 건조 과일, 특히 건포도나 씨 없는 스타나(Sultana) 건포도는 주로 정원에서 키우는 새들에게 겨울 동안에 공급하면 더 없이 좋다.

3. 비타민의 기능과 역할

1) 비타민 A

씨앗에는 비타민 A 함유율이 낮다. 따라서 당근과 푸른 야채를 공급하고, 지시대로 먹이를 보충해야 한다. 비타민 A는 간에 저장되므로 결핍증이 즉시 나타난다. 결핍되면 칸나다증(Candidiasis)과 같은 전염으로부터 점막을 보호하지 못한다.

2) 비타민 B 복합증

싹이 튼 씨앗은 이스트의 기초 생산물로서 비타민 B₁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어떤 비타민 B, 특히 엽산과 비타민 B₁₂는 장내의 박테리아에 의해 합성된다. 과다한 항생물질의 사용은 이러한 비타민 합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핍되면 영양분의 물질대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성장과 깃털을 위해서 중요하다. 또 신경병의 원인이 된다.

3) 비타민 C

새는 대부분 스스로 비타민 C를 합성한다. 예외로 직박구리(Red-Eared Bulbul)는 과일을 섭취하여 비타민 C를 얻는다. 비타민 C는 보충먹이에 대부분 있으므로 결핍은 거의 없다. 결핍되면 건강한 깃털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며 전염병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4) 비타민 D₃

비타민 D₃는 깃털에 내리 쬐는 햇빛의 성분인 자외선에 의해 자연적으로 합성된다. 비타민 D₃는 보충 먹이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결핍되면 인과 결합해서 체내 구석 구석 칼슘 저장의 유통과 이동에 필수적인 장애를 받는다.

5) 비타민 E

비타민 E는 맥아 기름의 형태로 공급될 수 있고, 또는 보충 먹이의 일부로써 공급될 수 있다. 결핍되면 신진대사와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 비타민 K

비타민 K는 장내의 박테리아에 의해 합성되나, 지금은 인공적인 형태로 널리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피그파렛(FigParot)과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앵무(Bolborhynchus)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결핍되면 혈액 응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4. 환약으로 만든 조그마한 먹이 펠릿(Pellets)

미국에서 특히 구관조 먹이를 작은 덩어리로 균한 환약 형태의 먹이를 개발하여 여러 종류의 새에게 먹인다. 이 환약은 인기 있는 상품이다. 이 먹이는 곤충사료를 먹지 못하는 핀치류에게 좋은 먹이로 공급되며, 큰 부리새와 그와 비슷한 종류의 먹이조섭에도 꼭 첨부된다.

핀치류에게 환약을 쉽게 먹으려면 접시에 환약을 담아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한 시간 정도 불린 뒤에 먹이는 것이 좋다. 불린 환약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겠지만 조심해서 다루면 부서지거나 분해되는 일은 없다. 환약으로 된 먹이 조섭은 씨앗을 먹는 새에게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쉽게 먹지 않는 경우가 있다.

환약은 일반용과 번식용 두 가지로, 번식기용은 단백질 함량이 높다. 이 환약은 씨앗만을 먹이는 것보다 훨씬 균형 잡힌 먹이지만, 만일 새가 그것을 먹기보다는 으깨는데 더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낭비될 수 있다. 처음에는 환약을 곡물 씨앗과 섞어 주어 먹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조장할 필요가 있다.

5.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은 모든 종류의 새들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특히 무소새와 같은 종은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식성이 좋은 구관조는 평상시 먹이로 생고기나 잘게 썬 고기를 먹는다. 과일을 상식하는 새들도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은 필요하다. 핀치류에게 고기를 먹이면 사납게 만든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잘게 썬 육포는 고기 조각이 서로 붙지않아 낭비가 없어서 더 좋다. 붉은 부리의 수입산 무소새는 일반적인 형태의 고기는 먹지 않지만, 잘게 썬 육포는 잘 먹는다. 왜냐하면 딱딱하고 달라붙는 덩어리보다 먹기가 쉽기 때문이다. 잘게 썬, 날로 된 쇠고기 심장을 먹이로 줄 수 있으

나, 적당한 양을 준다. 심장육은 낮은 함량의 지방에 반해 비타민 B 때문에 인기가 있다. 저민 고기처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칼슘과 인 사이의 1:1 비율 대신 1:60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익힌 양고기와 닭고기를 포함한 여타의 고기는 잘게 썰어준다. 어떤 핀치류는 통조림으로 판매되는 고양이 먹이나 개 먹이도 먹는다. 반면 앵무새는 더 많은 단백질과 골수를 섭취하기 위해 요리된 뼈를 갈아 먹기도 한다.

6. 기타 살아있는 먹이

1) 꿀벌의 애벌레

꿀벌의 애벌레는 간유(肝油)의 약10에 해당하는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으며, 밀웬과 같은 비슷한 먹이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다. 게다가 껍질이 부드러워 소화도 용이하다.

2) 귀뚜라미

귀뚜라미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조류 사육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귀뚜라미는 21-27℃의 기온에서 따뜻하게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짧게, 밀웬과 비슷한 환경에 두워야 한다.

번식을 시키려면 적당히 컸을 때에 부화장으로 옮긴다. 부화장은 전등으로 온도를 유지하고, 70%의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에 담긴 얇은 접시를 넣어 둔다. 다양한 녹색 식물과 사과 밀기울 등 귀뚜라미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준다.

암컷은 축축하게 적신 모래나 토탄으로 된 단지 위에 알을 낳는다. 알은 27℃가 유지되도록 하고, 매일 스프레이 습기를 유지시킨다.

메뚜기의 알은 2주후 부화되며, 새끼가 태어난다. 어린 귀뚜라미는 6주 후 번식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5번의 변태를 한다. 어미 귀뚜라미는 그들의 새끼를 잡아먹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한 분리해 놓아야 한다.

새끼 귀뚜라미는 1 mm 정도일 때 새 먹이로 쓰기에 가장 좋다.

3) 메뚜기

메뚜기는 귀뚜라미와 유사한 환경에서 관리된다. 메뚜기의 새끼는 호퍼(Hopper)라고 하는데, 호퍼는 알에서 10일 후에 부화하고, 2개월 후에 번식한다. 그러나 어린 메뚜기는 성장 과정에서 죽는

경우가 많다. 한 조사에 의하면 1/3 정도만이 살아서 번식을 한다고 한다. 만일 메뚜기의 분비물이 붙어지면 주로 내장에서 발견되는 기생충에 감염된 것이다. 모두 살아 있는 먹이는 깨끗한 플라스틱 보관기에 보관하여 새의 먹이로 활용한다.

4) 구더기

구더기인 집파리와 금파리의 애벌레는 많은 종류의 새들에게 좋은 먹이가 된다. 그러나 구더기가 보툴리눔(Botulinum)이라는 치명적 식중독을 옮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피하려면 구더기를 밀기울에 옮긴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구더기가 썩은 음식을 먹었던 그들의 장을 비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낚시 용품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육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더운 환경에서는 그들의 생주기가 비교적 빠르다. 구더기는 알에서 24시간 만에 부화해서 2주면 번데기가 되기 전에 가장 큰 크기로 자란다. 이 때가 새에게 먹일 수 있는 기회이다.

5) 밀웜(Mealworm)

밀웜은 단지 딱정벌레(Meal Beetle)의 생주기에 있어서 애벌레 상태를 말하며 진짜 벌레는 아니다. 밀웜은 풍족하게 구할 수 있고, 구더기와 같은 메스꺼움도 없다. 아마 사육자에게 가장 널리 이용되는 살아 있는 먹이일 것이다. 밀웜의 생주기는 더 길어서 새로 부화된 애벌레는 25℃에서 성충이 되는데 4개월이 걸린다.

먹이로서 밀웜은 결점이 많다. 밀웜의 껍질은 비교적 소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 황갈색이 아닌 하얀색이 핀치류의 먹이로 이용된다. 밀웜에게는 대체로 밀기울만을 먹이는데, 이런 경우 칼슘의 결핍을 가져오고, 규정된 1:2의 칼슘 비율 균형이 칼슘:인의 비율이 깨지게 된다. 밀기울은 골증식체산(骨症食滯酸)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은 칼슘을 덩어리지게 해서 칼슘의 효용도를 떨어뜨린다. 같은 이유로 밀기울을 빼지 않은 밀가루는 칼슘의 공급원으로 적당하지 못하다.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칼슘을 첨가하도록 항 하얀 밀가루와 밀기울을 섞어 주도록 하고 있다.

밀웜은 칼슘 외에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지방(fatty)이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비타민이 부족하다. 특히 비타민 A의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가루 형태로 만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이에 첨가해서 주는 것이 추천된다.

밀웜을 보관하는 용기는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과 통풍구가 있어야 한다. 밀기울 혼합물을 몇 cm의 깊이로 채운 후 그 위에 작은 양의 귀리를 더 첨가한다. 닭 모이인 배합사료가 전통적으로 사

용되며, 더 균형 있는 영향을 준다. 몇 조각의 사과는 이들 벌레의 먹이로도 쓰이지만, 습도를 올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만일 환경이 너무 건조하면 서로 잡아 먹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습도가 13%가 되면 성장을 멈추고 먹이를 먹지 않는다. 최저 습도는 70%에서 자란 것과 그렇지 않은 30%에서 자란 것 사이에는 50 mg의 체중 차이가 난다.

이외에 곰팡이가 문제된다. 딱정벌레는 번식을 위해서 약 25℃의 온도이어야 한다. 그리고 먹이를 주지 않은 채로 홀로 두어야 한다. 6주 정도가 지나면 알에서 애벌레가 부화한다. 그 후 3-4주가 되면 애벌레는 25 mm 정도의 크기로 자라며, 이때 새들에게 먹이로 공급할 수 있는 적기가 된다.

종종 깊은 밀기울이 든 용기에서 밀웜을 꺼내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특히 멍쳐 있을 때는 용기 위에 물에 젖힌 삼베나 황마 조각을 두면 애벌레를 위로 모을 수 있다. 이때 용기는 어두운 곳에 두어야 한다. 만일 햇빛이 비치면 애벌레는 용기 밑으로 숨는다.

6) 흰벌레

이 실과 같은 벌레들은 매우 영양가가 높고 어린 새끼와 어미 새들에게 좋은 영양을 준다. 쉽게 구매하기는 어렵지만 배양물질로 쉽게 기를 수 있다. 흰벌레를 기르려면 빈 통에 적신 토탄을 반 정도 채우고, 작은 배양물질 조각을 놓는다. 그리고 먹이로서 우유에 적신 갈색 빵조각을 놓는다. 뚜껑을 덮고 통풍 구멍을 뚫어 20℃ 정도의 장소에 갖다놓는다. 별도로 발효하기 시작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음식을 공급한다.

벌레를 수확하려면 약 4주의 시간이 걸린다. 번식기에 양이 늘어난 것을 사전에 잘 분리하여 배양한다. 일정한 시기를 두고 벌레를 분리시키는데 자라나는 중간 벌레를 같은 다른 유사한 벌레도 같은 방법으로 기를 수 있다.

7. 먹이그릇

플라스틱 그릇은 부드러운 먹이에서 모래까지 줄 수 있다. 또, 씻기 쉽고 튼튼하며 잘 건조된다. 그런데, 이 그릇은 강한 부리를 가진 앵무새에게는 적당하지 않다. 쉽게 깨지거나 떨어뜨려 내용물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자기 그릇이나 금속으로 된 그릇은 비싸지만, 깨질 가능성이 없어 앵무새를 포함한 모든 새에게 유용하다. 호퍼의 여러 형태의 그릇은 핥과의 품종이나 밴덤닭과 같이 핥에 유사한 조류의 먹이통으로 쓰인다.

물그릇의 금속 꼭지는 파괴적인 앵무새에게도 이상적이다.

여름에는 특히 병아리가 있을 때에는 많은 물이 소비된다. 이 시기에는 수분 섭취량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큰 물그릇이 필요하다.

오징어 뼈 클립은 새가 방해 없이 갇아 먹도록 뼈를 고정시켜 준다.

IV. 새의 건강 돌보기

우리나라에는 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수의사가 전무하다. 그러므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새로 분양된 새는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쾌적한 환경은 물론 2주 정도 격리시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새의 발톱과 부리 끝을 잘 관리해야 한다. 발톱이나 부리가 너무 자라면 먹는 때나, 횃대에 앉는 습관에 방해를 받는다.

비정상적으로 새의 발톱이 길면 스스로 엉키거나 다칠 위험이 점점 커진다. 새의 발톱이나 부리를 자르는 가위 대신 손톱 깎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르는 부위는 밝은 조명을 통해 비쳐 보면 핏줄이 보이는데, 핏줄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자르고 다듬어 준다. 부리는 한번 자르기 시작하면 점점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자주 잘라 주고 신선한 나뭇가지와 오징어뼈를 주어 부리나 발톱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한다. 사랑새(잉꼬)는 부리의 과도한 성장에 민감하고 다양한 핀치류 새의 발톱은 빨리 자라서 정기적인 발톱 자르기가 필요하다.

1. 비상시의 대처 방법

새에게도 상해는 때때로 발생하고, 치료는 상처에 따라 다르다. 새가 부주의하게 들창의 유리로 날아가다 부딪치면 어두운 곳에서 1시간 정도 안정을 시킨 후 새장에 넣는다. 출혈은 플라이트의 피멍만 보일 뿐 새의 외형은 이상 없어도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가 있다. 지혈도구는 짚어졌거나 너무 짧게 자른 발톱으로부터 나오는 피를 멈추는데 쓰인다. 외형적인 상처는 그 즉시 딱지가 생겨 매우 빨리 지혈된다. 포유동물과는 달리 새는 높은 체온 때문에 보통 상처에 번식하는 박테리아가 침입하지 않아 감염되지 않는다. 날개와 다리의 상처는 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도 움직임을 통해 간단히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새를 잡아야 한다. 새를 잡는 것만이 빠였는지 금이 갔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신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여 새의 다리에서 뼈가 수직으로 움직이는 곳을 찾아본다. 이 곳은 골절이고 쉽고, 앉는 경우에 넓적다리에서 가장 많

이 일어난다. 날개가 골절인 새는 비정상적으로 날개를 접고 잘 사용하지 못한다. 수의사의 충고를 받되, 가장 좋은 치료는 다리에 아무 조치 없이 안정시켜 자연적인 치유를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앵무새 다리에 무엇인가를 맨채로 두는 것은 어렵다. 골격부분이 몸체에 가까우며 부목은 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새의 골격 구조 때문에 외적인 지지만 그 부분에 한다. 새의 날개가 골절되었을 때는 쉬게 하고 날지 못하게 한다. 낮은 핫대를 설치하고 선부른 비행과 착지 못하게 조치한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부러진 뼈는 몇 주 내에 빨리 아문다. 많은 경우, 특히 골절은 치료 기간이 길지 않으며, 다친 새는 정상적으로 완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2. 병의 초기 신호

심한 병의 초기 신호는 깃털이 곤두서고 똥의 외형이 변하고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다. 병든 새는 대부분의 시간을 웅크리거나 자거나 혹은 오랫동안 두 다리로 서서 핫대에서 쉰다. 보통 건강한 새는 한 다리로 쉰다. 전염병의 전염 과정에서는 식욕이 떨어지고 그 다음 녹색 똥을 본다. 먹이와 같은 다른 요인이 또 견고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앵무새의 똥은 일반적으로 녹색이므로 다른 근거의 신호가 필요하다.

3. 병든 새의 일반적 돌보기

질병은 언제든지 새장 안에 침투할 수 있다. 전염 위험성이 있는 것은 가급적 새장 안에 유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먹이와 물그릇은 핫대 밑에 두지 않는다. 핫대에서 떨어진 오물은 먹이통이 오염되기 때문이다.

먹이는 건조하게 관리해 주고, 물은 매일 신선한 물로 갈아주어 미생물이 서식하지 않게 한다. 새장의 기초적인 것들은 불량하면 설치류나 야생조류가 들어올 염려가 있다. 야생조류가 새장 안에 들어와 배설하면 기생충이나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핫대가 오염되면 발병의 원인이 되므로 핫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주 소독해준다.

1) 새의 질병

(1) 털뽑는 병

깃털이 병은 완치하기 어려운 고질병 중 하나로,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 깃털 뽑는 버릇(Feather-plucking)은 특히 앵무새 종류와 같은 새에게 흔한데, 심각한 질환이다. 이런 현상은 성조가 더 많다.

새가 먹이를 원할 때 자신의 털을 빼내는데, 심하면 모조리 뽑을 수도 있다. 이 병은 한가지 요소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영양 결핍을 들 수 있다. 어떤 새들은 마른 씨라는 제한된 먹이만이 제공되거나 다른 종류의 먹이는 안 먹음으로써 영향을 받는다. 다양한 진드기와 이를 포함한 기생충의 만연은 깃털이 빠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들에게 직접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예는 매우 드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오랜 기간 새대를 이룬 새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밴덤같이 외부 기생충의 조성이 힘든 새는 닳거나 다쳐서 털이 뽑힐지는 몰라도 기생충이 원인일 수는 없다.

앵무새처럼 지능적인 새 종류, 더구나 야외 새장에서 기르는 이 종류는 다른 새의 깃털은 뽑아도 자신의 털은 뽑지 않는다. 이런 요소들이 조합되면 스트레스가 특별한 요소가 되어 깃털 뽑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새가 많이 모인 곳에서는 권태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다. 작은 새장 안에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둔다면 앵무새에게 작은 자극을 주어도 깃털이 빠지게 된다. 이런 나쁜 버릇을 들지 않으려면 환경을 즉시 개선해 주어야 한다. 짝 없이 혼자 지내는 늙은 앵무새는 스트레스를 받기 더 쉽다. 대부분의 앵무새는 천성적으로 사회적인 새이고, 일생 동안 많은 유대를 갖는다. 짝을 이루어 적당한 플라이트에서 동우리를 틀면 깃털 뽑기는 틀림없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새 깃털은 자연적으로 나오고, 새들은 그의 파괴적 충동대신 동우리에 구멍을 낼 것이다.

많은 앵무새는 본능적으로 빗속에서 목욕하는 것을 즐기는데 좁은 새장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깃털은 윤기 나는 모습을 잃고, 새들은 스스로 깃털을 정돈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깃털 뽑기로 대처한다. 치료법은 정기적인 목욕을 습관화 한다.

사실 잘 보살피는 앵무새는 깃털 뽑기를 하지 않는다. 새장 환경에 적응이 안되는 어른새, 주인으로부터 보살핌이 부족한 새, 애정 결핍으로 관리되는 새들은 이러한 털뽑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랑새 역시 그들의 어린 새끼 새들은 내 쫓기 위해 털을 뽑기도 한다. 핀치류의 털 뽑기는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 이 증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능성들이 그 동안 제기되어 왔다. 어린 새끼가 털이 나는 시기를 전후해서 날개 털을 잃는다는 것은 미미한 경우에서부터 평생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세균 감염이 그 주요 원인이며,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병은 다른새들 즉 왕관 앵무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 같다.

(2) 털의 포낭(包囊)

카나리아에 있어 깃털의 포낭은 깃털 구도의 비정상에서 기인되며, 그 결과,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할 자리에 용기부에 생긴다. 이 상태는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것은 종기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사실 새들에게 있어 피부 종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3) 세균성 질병

불결한 환경에서는 세균성 질병이 일어나기 쉽다. 이 병은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장염과 같이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발전한다. 초기에 손을 씻어 약효를 볼 수 있지만, 항생제는 세균성 질병에 효과적일 수 있다. 항생제는 분말 형태를 물에 녹여 투여하거나, 수의사가 약에 약품을 주사할 수도 있다. 비둘기와 같이 알약의 형태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종도 있다.

만일 세균성 질병이 새장 안에 발생한다면 병에 걸린 새를 격리시키고, 주위 환경을 완전히 소독한다. 먹이통과 물통은 분비물에 의해 쉽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잘 씻고 철저히 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러운 헛대는 발바닥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토착세균성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반 죽성 먹이는 먹는 새장에서 발병한다. 치료는 어렵지만 항생제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눈병 역시 더러운 헛대의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 손상된 눈의 털 주변은 지저분해지고, 눈주위가 부풀어 오른다. 손상된 눈을 닦아주고 적절한 안과 연고와 물약을 투약 치료하면 쉽게 낫는다. 이 치료를 매일 수차례 해 준다. 겉으로는 어느 정도 다 나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질병 치료는 며칠간 계속해야 한다. 이것이 항생제 치료의 표준 과정이다.

(4) 바이러스성 질병

세균성 전염병이 적절한 항생제의 처방으로 극복될 수 있다면 바이러스성 질병은 효과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밀도가 조밀한 곳에서는 사망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이러스 질병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가축산업에 있어서의 경제적 의미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뉴캐슬 질병' 혹은 '양계에 흑사병' 등이다. 이런 질병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히 앵무새의 폐렴이나 장티푸스와 비슷한 심각한 병원체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 증세는 아무런 징후 없이 갑작스런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서 신경계, 호흡계에 이상이 오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벼운 감염의 경우, 산란하는 알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감염된 가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보기이다.

(5) 핀치류의 탈모

금복(핀치류과)과의 탈모로 알려진 상태는 특히 사랑앵무와 관계가 깊다. 주요한 날개 부분의 깃털이 사라져 그 결과는 새는 날 수가 없다. 지금까지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6) 눈의 감염

눈의 감염은 두건 모양의 큰부리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 주변에 해를 입힐 수 있다. 만일 양쪽 눈 모두 손상을 입는다면 그것은 좀 더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 수의사에 도움을 청한다.

(7) 토착병

일반적으로 불결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토착병은 핀치류나 사랑새(잉꼬) 종류의 새에게서 자주 볼 수 있으며 만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토착병은 다리로 금방 퍼질 것이다. 치료 결과는 금방 호전되며, 눈 주위의 부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24시간 후에도 적절한 약물 투여는 매일 계속해야 한다. 치료제로 들기름을 바르는 것은 우리나라 사육자가 즐겨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나, 치료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이다.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 중 하나가 천연두 바이러스인데, 이때 대부분의 경우 머리 주위에 농포(膿疱)가 형성되어 이것이 발전하면 호흡에 곤란을 겪게 된다. 고름이나 진물을 통해 다른 새들에게 전염되기 쉬우나, 한번 완치되면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비둘기, 앵무새, 카나리아 등이 이런 유형의 바이러스에 가장 피해를 입기 쉬우며, 직접 또는 곤충에 물림으로서 전염이 된다.

(8) 버섯병(Fungal infections)

조류에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특별한 집단에서 볼 수 있다. 버섯병은 화밀(花蜜)같은 과일을 주식으로 하는 진홍앵무와 같은 새들에게 해를 끼친다. 버섯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입 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이들은 소화기 아래로 뱉어 내려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간장(肝臟)에 저장되어야 할 비타민 A의 부족은 이러한 전염병에 쉽게 걸리는 원인이 된다. 덥고 습윤하며 통풍이 잘 안되는 환경에서 잘 걸린다. 균상종(菌狀腫)은 보통 호흡기 계통에서 발달하여 몸의 다른 부분으로 퍼져 나갈 수도 있다. 체중 감소나 운동후의 가쁜 호흡 등 고질병의 증상들이 이 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몇몇 진정제가 있기는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9) 기생충

관상 조류를 집안에서 키우는 사람에게 기생충이란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새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육될 때 기생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새들이 즉시 전염될 수 있다. 기생충은 크게 조류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경우와 몸 내부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로 나뉜다. 기생충들은 몸에서 발견되면 쉽게 제거될 수 있으며, 새의 건강에 큰 위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붉은 치즈 벌레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 조그마한 기생충들은 특히 흰 배경속에 작고 붉은 점처럼 보인다. 이 붉은 빛깔은 조류의 피를 빨아먹은 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붉은 치즈 벌레는 등지나 다른 후미진 곳 등 조류와 가까운 곳에 산다. 이런 기생충들은 어린 새끼들에게는 빈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성장에 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새 등지를 소독하고 청소해 주어야 한다. 특히 몇몇의 품종은 다른 종보다 기생충에 민감한데, 예를 들어 잉꼬는 치즈벌레에 가장 취약하며, 호금조는 기낭 치즈벌레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피부병 치료는 단순히 애완동물 가게에서 판매하는 약을 외피에 바르거나 매일 발병한 곳에 석유를 바르면 효과가 본다. 이들 석유 물질은 치즈벌레가 호흡하는 과정을 방해하여 결국은 죽게 한다. 병의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당분간은 치료를 계속하여 모든 기생충을 완전히 박멸하도록 한다. 피부병에 노출된 새들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격리시키고, 새장과 등지를 완전히 소독한다.

기낭 치즈벌레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 기도를 방해한다. 특히 핑의 경우, 다른 기생충-기관개취충(Gapeworm)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기관개취충은 숙주(宿主)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핑군(群) 속에 같이 사는새들 역시 전염성 곤충을 갖고 있을 때는 그로부터 해를 입을 수 있다. 이 곤충은 기생충 회로 중에서 새에 의해 알을 운반하는 때는 중간 숙주로 활동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감염된 새는 부리를 열거나 하품을 하거나 또는 기관을 따라 기생충을 뱉어 내려고 애를 쓴다. 나이 든 새들은 이를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으나, 어린 새의 감염은 치명적인 위험이 따른다.

기생충을 제거하는 부수적인 방법은 가능한 재발 방지를 위해 조류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특히 원형벌레에 의해 자주 습격 받는 호주산 작은 앵무 패러키트의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된다. 이 벌레들은 중간 숙주 생활을 할 필요 없이 분비물을 통해 곧바로 다른 새들에게 전염된다. 새의 창자 안에서 기생충의 커다란 알이 산란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비위생적인 상황의 새장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육자들은 정기적으로 구충을 실시하고, 양육 기간 전인 봄과 가을철에 다시 구충제를 투약한다.

편형벌레들은 많은 기간 동안 중간 숙주 생활을 하므로 원형벌레보다는 덜 심각한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둘기들은 종종 이 들 기생충들을 지니고 다니며, 새로 수입된 진홍앵무는 그들 창자 내에

기생하고 있는 편형동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효과적인 약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수의사에 의뢰하여 구충제를 구입할 수 있다.

회충에 해를 입은 새의 경우는 색깔이 옅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 보다 일반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원생동물 때문이다. 이 미생물들은 가축용, 사냥용, 조류와 모두 관련되어 있으며, 콕시듐증(Coccidiosis)으로 알려진 병을 일으킨다. 핀치류와 사랑새를 포함한 다른 새들도 역시 위험하다. 이것은 병에 민감한 새들에게 약을 탄 먹이를 줌으로써 고칠 수 있다. 이 약은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새를 기르는 사육장과 같은 데서 널리 사용되며, 흔히 콕시도스테이츠(Coccidostats)라고 부른다. 원생동물로 인해 일어나는 병은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며, 먹이의 제공은 심각한 위협이다.

‘설펜마이드(Sulphonamides)’라고 알려진 일단의 약들은 전통적으로 앵무새의 치료에 각광을 받아 왔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약들이 전문가에 의해 조제될 수 있다. 새들은 콕시다이얼(Coccidial)전염병에서 성장하면서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결정적인 감염 증세가 어린 새에 주로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

(10) 종기(腫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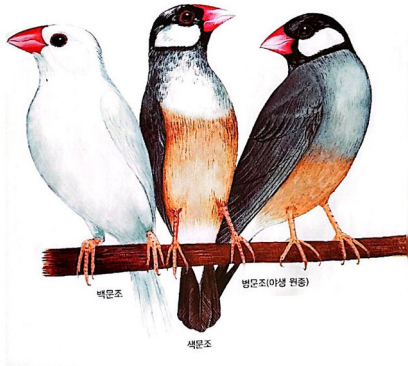
사랑(잉꼬)은 양성이고 암과 비슷한 형태의 종기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는다. 만일 새가 종기를 앓고 있다고 의심되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만일 내부 종기인 경우 그 증상은 병이 훨씬 진행된 후에야 뚜렷해진다. 어린 새를 위협하는 내부 종기는 거의 중년이나 노년층 사랑새들의 만성적인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납막의 색이 변하는가 하면, 새가 점차로 병들어 결국에는 햇대에도 오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림 1> 호금조



<그림 2> 금화조



<그림 3> 백문조, 색문조, 병문조



<그림 4> 일홍조



<그림 5> 일환조



<그림 6> 금회조



<그림 7> 장미앵무



<그림 8> 도라지앵무